

여수, 문화·관광 되살려 원도심 부활 나선다

동문·한려 등 38만㎡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중앙동·여수항 복합항만단지·해양레저쇼핑몰

여수시가 대표 구도심 지역인 중앙동과 여수항 일원에 복합항만단지와 해양레저쇼핑몰을 구축하는 등 원도심 재생에 나선다. 또 문화재 복원사업의 하나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 현창(顯彰)사업을 마련하는 등 전라좌수영 호국성지를 꾸미는 청사진도 제시하고 있다.

기존 도심재생사업이 택지개발과 재건축 등 고밀도 단계별로 그 후유증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상업·관광·문화·서비스 등 제3차 산업을

원도심 재생 해법으로 추켜 든 것이다.

시는 오는 12월5일 본격 시행을 앞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도시재생사업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대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동문·한려·중앙·충무·광림·서강·대교·월호 등 38만1000㎡에 달하는 원도심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노후 가옥들을 철거하는 등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여수세계박람회를 준비하면서 도시미관 개선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면서 원도심 일원이 특색 있는 시가지로 변모하고 있다.

중앙동 이순신 광장 부근 식당가에는 향토음식 특화거리를 조성, 여수 대표 먹자골목으로 탈바꿈해 연중 수백만 관광객들의 발길이 드나드는 명소가 됐다.

또 박람회장 진입로 일대와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경관·간판문화 개선사업을 통해 주요 관광지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원도심 지역과 오동도·소호요 등 트라까지 이어지는 해안로에는 LED

조명을 설치해 '낮보다 밤이 아름다움' 여수의 야경을 연출하는데도 기여했다.

시는 박람회를 통해 도시 이미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보고 추후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해양관광레저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복안을 마련 중이다.

방치되고 있는 세계박람회장 국제관을 문화창작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국내·외 작가들의 레지던시 공간으로 만들고, 난개발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고소동 고층아파트 비탈면에 고품격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장군산과 종고산, 고라산

등을 연결하고 수변공간과 연계되는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도시 열섬 방지와 기후보호시범도시의 위상 정립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원도심 개발은 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위원회가 맡게 된다. 시는 '도시재생위원회'에 앞서 이달 내에 '도시재생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여수시 원도심개발과 하현욱 과장은 "정부의 도시정책에 부응하고 새로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여가·환경·안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포스코패밀리 SNNC, 니켈 생산량 10만t 달성

연 4~5억달러 수입대체 효과

포스코패밀리 SNNC가 니켈 무게 생산량 10만t을 달성, 연간 4~5억달러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뒀다.

지난 2008년 10월 첫 가동 이후 최단기간 출성, 최단기간 정상 조업도 달성, 최단기간 공장건설의 기록을 갖고 있는 SNNC는 스테인레스 제품 제조원가의 80%를 차지하는 니켈을 연간 2만7000t씩 생산해 전량 포스코에 납품하고 있다.

SNNC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페로니켈을 국내 최초로 생산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제품의 가격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학동 SNNC 대표이사는 "원가절감과 설비의 효율적 이용, 기술개발에 더욱 주력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고품질·고부가가치의 제품 생산에 최선을 다해 포스코가 생산하는 스테인레스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곤충·미생물 육성 곡성-농진청 손잡다

곡성군과 농촌진흥청이 곤충 및 미생물산업의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아 귀추가 주목된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와 곡성군은 1일 "지난 27일 오전 곡성군청 회의실에서 지역농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곤충·미생물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 체결을 통해 앞으로 ▲곤충·미생물 자원 교류 및 지원 ▲개발 기술의 현장 적용 및 검증사업 ▲곤충·미생물 관련 기술자문 및 교육 ▲산업재산권 정보 공유 및 기술이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또 ▲지역특화 곤충산업 육성을 통한 곡성 브랜드와 구축 ▲지역농가 유용곤충 대량 사육 실현 ▲유용미생물의 산업화 노후 기술 교류 등에도 함께 나설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는 지난 2010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곤충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선도적인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곡성군은 농업회사법인(주)한국유용곤충연구소와 곡성생물방제센터 설립을 통해 곤충 및 미생물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도서관서 책읽는 원아들

지난 29일 보성군 예당 공공도서관을 찾은 예당어린이집 원아들이 친구들과 사이좋게 책을 읽고 있다. 특량면 예당리 363번지에 위치한 예당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지적욕구 충족과 친근한 지역민의 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광양 보육수요 예측 엉터리 시설 운영난

작년 상반기 읍 등에 25개 신규인가

정원 8300명에 6300여명 이용 그쳐

광양시가 보육수요를 잘못 예측해 보육시설 인허가를 남발하면서 행정력 및 재정 낭비는 물론 어린이집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계기가 됐다

1일 광양시에 따르면 산업도시로써 매년 인구증가로 보육수요가 늘어나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광양읍과

중마동권에 대한 보육수요도 조사를 벌여 25개소를 신규 인가설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부는 부모가 가정보육을 할 경우 보육료를 지급하는 정책변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부모 보육 아동수가 1000여 명이었던 것이 3200여 명으로 신청자가 급증, 상대적으로 어린이집들의 보육수요가 급

감했다. 광양시에는 법인·국공립·민간·가정 등 148곳의 보육 인가시설이 있으며, 정원이 8374명인데 그 76% 수준인 6380명만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해 초 25개소의 어린이집(민간·가정)을 신규 인가설치해 결과적으로 시설이용 비율을 크게 하락시킨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특히 지난 2007년 태인동과 진상면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인가해줘 기존

운영중이던 인근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아동수가 매년 크게 줄어 폐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진월면 S어린이집 관계자는 "1998년 정원 120명 인가시설로 설립돼 15년동안 정원을 제대로 채운적이 없었고"면서 "인접 거리에 있는 기존 시설을 두고 예산을 들여 국공립 보육 시설을 설치인가한 것은 모순"이라고 질타했다.

이처럼 시의 보육수요 예측 잘못으로 애꿎은 보육시설들의 운영난이 가결적으로 시설이용 비율을 크게 하락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여수 시내버스 노사협상 결렬 감차 운행

14개 노선 32대

여수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 결렬과 추가근무 중단에 따른 1일부터 시내버스가 감차 운행되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조 측은 운전원 부족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행해오던 격일제 근무에서 벗어나 3~5일 연속 근무 후 하루 쉬는 형태의 격주가 계속되자 최근 근로여건 개선을 사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경영난 악화와 버스자격제도 시행으로 운전원 총원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등 상호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사측이 계속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추가근무를 중단하고 있다.

감차운행 노선은 시내방면 7개 노선, 쌍봉방면 4개 노선, 삼일방면 1개 노선, 돌산방면 2개 노선의 총 32대 차량으로, 운행횟수 역시 기존 708회에서 444회로 총 264회 줄어든다.

시는 감차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출근·등교시간대 주요 이용노선과 각 읍·면 등 시외곽 운행노선은 최대한 기존 운행시간을 유지하고 외곽노선에 비해 운행노선이 많은 시내방면, 쌍봉방면 노선 위주로 감차 운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고흥, 농기계 임대사업 농가 경영비 절감

고흥군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는 마늘과종기 등 53종 253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하루 5000~12만원이다.

농업인들은 농업기계를 임대하면서 작업 일수가 줄어들고 고가품인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

어 특히 인건비 부담을 20% 이상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특히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는 군의 특산물인 마늘농사에 도움이 되는 마늘쪽분리기,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등의 임대 농기계를 80여대 보유하고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계화를 통해 일손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농기계를 꾸준히 구입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1 시공 전 / 단열배이스가벽시공

2 단열배이스가벽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및 램프 시공

4 시공 후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냉방비 절감

냉기차단

겨울철 실내온도 3~5°C

난방비 15~20%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문모델 탈렌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기농장과 60년의 제다

各種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증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人的 차만 남품

名師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감동Set

다담Set

우전감로

감사Set

광주 차생원 : 062)224-2902

광주 NC점 : 062)510-7040

광주 신세계점 : 062)360-1232

서울 차생원 : 02)730-2983

광주 롯데점 : 062)221-1037

부산 차생원 : 051)256-7007-8

T.062)222-2902, 3973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동 763-1